

윤석민 “빅리그 결정 짓고 오겠다”

KIA 타이거즈의 윤석민이 ‘금의환향’을 꿈꾼다.

오는 10일 프로야구 스토브리그를 달굴 FA(자유계약) 시장의 막이 오른다. 8일까지 FA 공시된 선수가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승인신청을 하면 9일 FA 승인 신청선수가 공시된다. 10일부터 16일까지는 원소속 구단과의 협상테이블이 마련된다.

미국행을 타진하고 있는 KIA 에이스 윤석민도 이번 시즌을 끝으로 FA 자격을 얻으면서 이번 스토브리그의 대어 중의 대어로 꼽힌다.

윤석민은 지난달 14일 미국으로 출국해 현

FA 시장 10일 막 올라... 일정 바뀌 귀국 늦춰

MLB 구단들 관심 속 16일이후 계약 본격화

지 분위기를 점검하고 있다. 당초 FA 신청을 기점으로 일시귀국할 생각이었지만 계획이 변경됐다. 2014시즌 거취를 확정짓고 귀국길에 오르겠다는 게 윤석민 측의 입장이다.

KIA관계자는 “어제 윤석민의 FA 신청서는 받았다. 원래는 귀국을 한다고 했었는데 일정상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며 “(윤석민

이) 미국진출을 준비하고 있지만 팀에 필요한 선수이고 협상은 진행할 것이다. 연락은 잘 되고 있다. 유선상으로 윤석민의 의사를 타진하고 이야기를 나눌 방침이다”고 밝혔다.

원소속 구단과의 우선협상 기간이 끝난 뒤 윤석민의 미국행 움직임도 본격화 될 전

망이다. 미국 언론에서 꾸준히 윤석민의 이름이 언급되는 등 현지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윤석민은 “기사들은 호의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분위기는 잘 모르겠다.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어느정도인지 알 것 같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차분하게 기다리겠다.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의 생활은 만족스럽다. 류현진(LA 다저스)이 귀국하기 전 함께 라스베이거스 여행을 다녀오는 등 모처럼 여유있는 시간을 보냈다. 내년 시즌을 위해 보라스 트레

닝 센터에서 꾸준히 운동도 하고 있다.

윤석민은 “몸이 많이 좋아졌다. 훈련량은 한국에서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이곳 프로그램에 따라 운동을 하는 게 재미있다. 컨디션은 좋다”고 언급했다.

빅리그의 꿈을 꾸고 있는

윤석민. 윤석민이 ‘금의환향’에 성공할 수 있을지, 뜨거운 스토브리그가 야구팬들을 기다리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속았지...”

영국 프리미어리그 선덜랜드에서 뛰는 기성용(24)이 7일(한국시간) 선덜랜드 스타디움 오브 라이트에서 열린 2013-2014 잉글랜드 캐피털원컵 사우샘프턴과의 4라운드 경기에서 상대팀 제이 로드리게스를 피해 드리블을 하고 있다. 선덜랜드는 사우샘프턴을 2-1로 꺾고 8강에 진출, 첼시와 대결하게 됐다.

/연합뉴스

광주 FC 을 시즌 막바지 질주

10일 홈그라운드서 충주 험멜과 K리그 챌린지 32R

광주 FC가 막바지 질주를 펼친다. 광주 FC가 10일 오후 2시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충주 험멜을 상대로 K리그 챌린지 32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지난주 안양을 4-0으로 제압하며 3연패에서 탈출한 광주는 분위기를 이어 막바지 질주를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안양전을 통해 재점화된 공격이 눈길을 끈다. 지난 경기에서 광주는 슈팅뿐 아니라

상대 진영 측면과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의 패스와 침투에서 조직적인 모습을 보이며 화끈한 공세를 펼쳤다.

박현이 가벼운 몸놀림으로 공격에 불을 붙이고 있고 이광진은 패스·드리블·슈팅 어느 하나 흠잡을 곳이 없다. 임선영은 특유의 테크닉으로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공격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

불붙은 공격도 공격이지만 완벽 방어로

무실점 경기를 펼친 수비라인도 반갑다.

‘최고참’ 마철준이 노련하게 수비라인을 지휘하고 있고 정우인은 탄탄함으로 수비진에 안정감을 불어넣고 있다. 부상에서 회복한 오른쪽 왕백 김수범도 빠르게 본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수비라인의 핵 골키퍼 자리도 든든하다. 지난 안양전에서 시즌 첫 선발출장에 나섰던 골키퍼 제종현이 무실점 경기를 책임지면서 김지성·윤기해·제종현의 경쟁 구도에 불이 붙었다.

팀 분위기는 좋지만 충주의 상승세는 경

계해야 한다. 충주는 6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펼치며 후반이 조용한 질주를 하고 있다.

충주전 키 플레이어는 플레잉 코치 마철준. 팀 최고참의 풍부한 경험과 카리스마로 수비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

상대에게는 피하고 싶은 상대다. 수비수로는 왜소한 신체조건(180cm·70kg)이지만 탁월한 헤딩 감각과 악착같은 대인방어, 그리고 볼 줄기를 예측하고 끊어내는 능력까지 겸비하고 있어 상대 공격수들이 가장 상대하기 싫어하는 유형의 선수로 꼽힌다. 지난 안양전에서 200경기 출장을 채운 K리그의 베테랑다운 냉정함도 장점이다.

광주가 안정된 수비로 골 폭풍을 이어갈 지 팬들의 관심이 쏠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와신상담’ 안치홍

“내년 시즌 팀 우승·亚冠杯 국가대표 목표로 훈련”

안치홍의 2014 시즌은 ‘터닝포인트’.

KIA 타이거즈 안치홍에게 2013시즌은 잊고 싶은 한해다. 예상하지 못했던 초반 부진, 부진 탈출의 답을 찾지 못하

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낸 안치홍의 시즌은 타율0.249 홈런3 타점39 도루16으로 끝이 났다.

안치홍은 “2009년 데뷔 후 이렇게 힘든 시즌은 처음이었던 것 같다. 참 길게 느껴졌다. 그래도 젊은 나이에 이런 경험을 한 게 분명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의 경험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타격폼 변화’라는 도전이 실패로 끝나며 어려움을 겪었지만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

안치홍은 “타격폼에 변화를 준 건 실패였다. 처음에 타격폼을 수정했던 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도전이었다. 후회는 하지 않는다. 어차피 야구를 하다 보면 계속 스스로 변화를 주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데뷔 첫 해 최연소 미스터 올스타, 두 자릿수 홈런, 최연소 한국시리즈 홈런 등을 기록하며 우승의 주역이 됐던 안치홍. 2011년에는 3할 고지에 올랐고 골든 글러브까지 품에 안았다. 거침없던 안치홍은 올 시즌 처음으로 부진으로 인한 2군행을 경험했다.

안치홍은 “지금 돌이켜 보면 올 시즌은 기술적인 부분보다도 정신적으로 나약했던 게 더 큰 문제였던 것 같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2군에서 정신적으로 재무장을 하고 싶었다. 2군 코치님들도 기술적인 부분을 지적해주시기도 하지만 경기에 임하는 자세라든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어떻게 극복하는지 등 경험을 많이 얘기해주셨다.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잘 될 때는 정말 쉽고 안될 때는 또 한없이 어려운 게 야구인 것 같다. 예전에 선배님들이 ‘지금은 체력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5년 정도 꾸준히 출장하다 보면 체력적인 부분에서 문제점이 드러난다’는 조언을 해주셨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올 여름 체력적으로도

지치면서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됐다. 체력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뼈저리게 실감했다”고 말했다.

힘겨운 시즌이었지만 수비에서 자신감을 찾았다는 것은 소독이다. 지난 가을·겨울 질치부심 수비 연습에 공을 들이면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냈다. 그만큼 내년 시즌을 위해 채워야 하는 부분은 확실해졌다.

안치홍은 “올해는 공격과 체력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을 남겼으니 목표는 뚜렷해졌다. 실패를 거울삼아 발전된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다”며 “2014시즌은 ‘야구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다. 팀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정말 중요한 해가 될 것 같다. 반드시 올해의 부진을 씻어내야 하고 아시아 게임 국가대표가 되고 싶은 욕심도 있다. 팀 우승과 함께 국가대표에 뽑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1월 9일 (당일)

해인사 단풍열차 대장경 축제

날 짜	시 간	일 정
11/9	06:30	광주역(06:30분)/극락강역(06:40분)/장성역(07:04분) 정읍역(07:25분)/익산역(07:51분)
	12:30	해인사 관광(단풍구경)후 대장경 세계문화축제 관광
	17:30	해인사 출발
	23:50	익산역(22:40분)/정읍역(23:08분)/장성역(23:28분)/ 극락강역(23:40분)/광주역(23:50분)

1인당 개인경비

성인/경로

55,000원

소아

42,000원

최초로 공개되는 보물 제22호 마애불입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차표/항공권/승선권
국제선 할인항공권 판매

(주)대원여행사
062)526-7000

www.daewontour.com
광주광역시 서구 동성동 대원빌딩 1층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 각 역에서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후원 KORAIL 광주본부

11월15일 11월22일 (무박2일)

참대열차로 떠나는 부산 기차여행

날 짜	시 간	일 정
11/15 11/22	23:50	광주역 집결 후 탑승
	00:30	광주역(00:30분)출발/극락강역(00:39분)출발/광주승정역(00:49분)출발 서광주역(01:16분)출발/효천역(01:22분)출발/화순역(01:39분)출발
	05:30	통도사 / 용궁사 / 해운대 누리마루 / 자갈치시장 관광
	17:20	부산역 출발
	22:59	화순역(21:48분)/효천역(22:06분)/서광주역(22:12분)/광주승정역(22:27분) 극락강역(22:50분)/광주역(22:59분)

1인당 개인경비

참대칸

86,000원

일반칸

66,000원